

넷마블, 미래 신사업·신작 대거 공개
“게임·블록체인·메타버스 융합한다”

넷마블이 올해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사업을 본격화한다.

방준혁 넷마블 의장(사진)은 27일 서울 구로 본사에서 기자간담회(NTP)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사업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넷마블이 신작을 대거 공개하며 미래 사업 전략을 발표하는 행사 ‘NTP’를 개최한 것은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방 의장은 넷마블의 새 도전 키워드로 블록체인과 메타버스를 꼽았다. 넷마블은 블록체인 사업을 투트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본사는 게임을 중심으로 블록체인을 결합하는 모델을, 자회사 넷마블에프앤씨는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게임과 콘텐츠를 결합하는 모델을 구현할 방침이다. 3월 ‘A3: 스틸얼라이브 글로벌’을 시작으로 ‘골드브로스’, ‘몬스터 길들이기 아레나’ 등 블록체인 게임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메타노믹스’와 ‘메타휴먼 기술’을 활용한 메타버스 사업도 추진한다. 방 의장은 “넷마블은 메타버스를 블록체인과 융합해 가상세계가 아닌 두 번째 현실 세계를 만들어 낼 것이다”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아 EV6, AWAK 선정 ‘2022 올해의 차’
올해의 전기 크로스오버·디자인 등 3관왕

기아의 크로스오버 전기차 ‘EV6’(사진)가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AWAK)가 선정하는 ‘2022 대한민국 올해의 차’에 올랐다.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는 26일 경기도 포천 레이스웨이에서 ‘2022 올해의 차’ 최종 후보에 오른 10대의 차종을 대상으로 23개 세부항목에 대한 실차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기아 EV6가 ‘2022 대한민국 올해의 차’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기아 EV6는 총점 6116.25점을 얻어 2위 제네시스 G90(6041.5점)을 근소한 차로 따돌렸다. 3위는 제네시스 GV60(6015.15점), 4위는 기아 K8 하이브리드(5866.5점), 5위는 메르세데스-벤츠 EQS(5737.85점) 순이었다.

자동차전문기자협회의 실차 테스트는 디자인, 퍼포먼스, 편의, 안전, 경제성, 혁신성 등을 23개 항목으로 구분해 각 항목별로 세부 평가를 진행한다.

기아 EV6는 전기차로는 최초로 ‘올해의 차’를 수상한 데 이어 ‘2022 올해의 전기 크로스오버’ 부문과 ‘2022 올해의 디자인’ 부문을 동시 수상하며 3관왕을 차지했다.

‘2022 대한민국 올해의 차’ 시상식은 2월 16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다. 원성열 기자

13개월 만에 코스피 2700선 붕괴

LG엔솔 ‘파상’ 실패…美연준 금리 인상 충격파

국내 주식시장이 27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발 악재에 크게 출렁이며 ‘검은 목요일’을 기록했다. 국내 IPO(기업공개) 사상 역대 최대 청약 증거금인 114조 원을 기록하며 큰 기대 속에 상장한 LG에너지솔루션의 ‘파상’(공모가의 두 배로 시초가를 형성한 뒤 상한가로 직행)도 실패로 돌아갔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에 13개월여 만에 2700선이 무너졌다.

SK하이닉스 제치고 시총 2위 달성
높은 시초가 형성했으나 상한가 실패
증권사 거래 먹통…투자자들 분노
외국인들 국내 주식 2조 넘게 팔아

●LG에너지솔루션 ‘파상’ 실패

먼저 이날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한 LG에너지솔루션은 ‘파상’에 실패했다. 시초가(59만7000원) 대비 9만2000원(15.41%) 내린 50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공모가인 30만 원보다 68.3% 높은 수준으로, 공모주 투자자들은 주당 20만5000원의 수익을 올리게 됐다.

시초가를 공모가(30만 원)의 2배에 약간 못 미치는 59만7000원에 형성했으나, 개장 직후부터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곧바로 하락 전환해 장중 45만 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다만 시초가를 높은 수준에서 형성하



국내 증시가 27일 미국 연준의 통화 긴축 선호 기조에 따른 외국인의 매도로 ‘검은 목요일’을 기록했다. 코스피 2614.49로 장을 마친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주식 전광판. 뉴시스

면서 상장 첫날 SK하이닉스를 누르고 단숨에 국내 증시 시가총액 2위로 등극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 70조2000억 원에서 118조1700억 원으로 불어났다. 기존 2위였던 SK하이닉스(82조6283억 원)를 약 35조 원 격차로 제치고, 삼성전자(425조6455억 원)에 이어 코스피 시총 2위가 됐다.

한편 이날 하이투자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신영증권 등 증권사들의 HTS(홀트레이딩시스템)와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의 시스템 장애가 이어져 논란이 일었다. 장 초반부터 주가가 급락하자 공모에 참여한 개인 청약자 442만 명이 대거 매도에 나선 영향으로 보인다. 주식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증권사 앱 오류로 매도 타이밍을 놓쳐 15만 원 날렸다”, “1시간 동안 주

가 빠지는 것만 구경했다” 등 불만 섞인 비난의 글이 줄을 이었다.

●외국인 매도에 코스피·코스닥 급락

LG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2709.24)보다 94.75포인트(3.50%) 떨어진 2614.49에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2020년 11월 30일 2591.34 이후 14개월여 만에 최저치다. 코스피 총가가 27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진 것도 2020년 12월 3일 2696.22 이후 13개월여 만이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882.09)보다 32.86포인트(3.73%) 내린 849.23에 마감했다. 코스닥 역시 2020년 11월 17일 종가 839.47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연준이 3월 금리인상 등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기조를 강하게 시사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달러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견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1조6373억 원, 코스닥에서 3645억 원을 순매도 하는 등 국내 주식을 2조 원 넘게 팔아치웠다.

연준은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성명서를 통해 “인플레이션은 2%를 훌쩍 넘어섰고 노동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FOMC는 조만간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의 목표범위를 상향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 상황 개선과 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감안할 때 조만간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의미다.

제품 파월 연준 의장도 “조건들이 금리 인상에 적절하다고 가정했을 때, 위원회가 3월 회의에서 연방 자금 금리를 인상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노동 시장을 위협하지 않고 금리를 올릴 여지가 꽤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연준은 이날 연방기금금리의 목표 범위를 0~0.25%로 동결했다.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여파는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FOMC 성명서는 대체로 시장 예상과 부합했으나 올해 금리 인상 횟수가 당초 예상한 3회보다 늘어날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 다소 매파적으로 해석된다”며 “국내의 금융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필요하다면 시장안정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iyay@donga.com

효성, 조현준 회장 취임 5년 만에 사상 최대 실적…VOC 경영으로 본격 도약

창사 이래 첫 영업이익 2조 원 돌파
액화수소사업 밸류체인 구축 본격화
적극적 현장경영, 탄소섬유 흑자전환

효성그룹이 조현준 효성 회장 취임 5년 만에 그룹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돌파한 것은 창사 이후 처음이다.

효성은 2021년 총 매출액 21조 2804억 원, 영업이익 2조 7702억 원(전년대비 매출액 42.3%, 영업이익 410.2% 증가)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업계에서는 그 동안 조 회장이 강조해 온 ‘VOC(Voice of Consumer) 경영’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고, 해외법인들과 자회사들의 글로벌 경영도 안착했다고 평가



조현준 효성 회장이 강조해 온 ‘VOC 경영’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면서 효성은 창사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2조 원을 돌파했다. 사진제공 | 효성

하고 있다.

조 회장은 평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고, 변화 속에서도 혁신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고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프리

미엄 브랜드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효성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액화수소, 탄소섬유 등 친환경 사업을 육성하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수소충전소 사업과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공장 건립 등 수소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산업용 가스 전문 세계적 화학기업인 린데그룹과 함께 2023년까지 1만3000톤의 세계 최대 규모 액화수소 공장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액화수소 생산, 운송 및 충전 시설 설치와 운영을 망라하는 밸류체인을 구축 중이다.

또한, 액화수소 공급을 위해 전국 주요 거점지역에 120여 개의 수소충전소를 구축(신설 50곳, 액화수소 충전설비 확충 70곳)하는 등 수소 공급을 위한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조 회장은 지난해 6월 울산 용연공장에서 최대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 기공식을 열고 액화수소 사업을 본격화 했다. 현대차, SK, 포스코와 함께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기업협의체에도 적극 참여 중이다.

탄소섬유와 아라미드 등 주력 제품도 견고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효성첨단소재는 전북 전주 친환경복합산업단지에 연산 4000톤 규모의 탄소섬유 공장을 운영 중이다. 조 회장의 적극적인 현장경영 행보로 탄소섬유도 2021년 흑자전환을 이뤄냈다. 산업용 신소재 아라미드는 2021년 생산규모 연산 1200톤에서 3700톤까지 확대했다. 증설을 통해 아라미드의 원가와 품질 경쟁력이 높아져 세계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뇌가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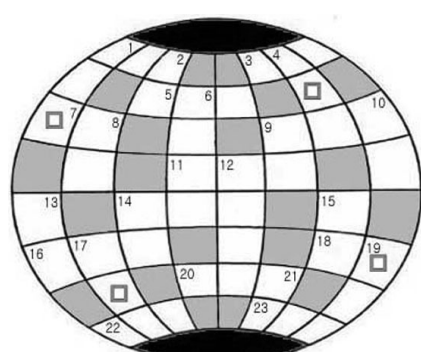
■ 스도쿠문제

		7		2	4	5		
	2						7	
8			1	7				2
7				1		8		
2		8	3		7	4		6
		9		8				7
9				3	2			4
	4						8	
		5	6	4		2		

■ 스도쿠정답

6	1	2	8	7	9	5	3	4
9	8	3	1	6	2	7	4	5
7	9	4	2	5	1	8	6	3
3	5	1	9	8	2	6	4	7
8	2	8	6	1	7	9	5	4
2	7	9	5	4	1	8	6	3
1	4	6	3	9	8	7	2	5
8	5	7	2	6	4	9	1	3
6	8	2	9	7	1	5	3	4
9	7	5	1	8	2	9	6	4
2	1	5	2	8	7	9	3	6
5	9	2	8	7	9	5	4	1
4	3	7	6	2	1	9	8	3
1	6	8	9	4	2	7	3	5
7	8	9	5	6	8	1	2	4
5	4	6	2	1	9	8	3	7
8	2	1	7	4	6	5	9	3

■ 낱말문제



■가로 열쇠 01.먼저와 닿는 차례. 03.매우 보드랍고 가볍게. 05.아래위가 좁고, 배가 부른 짐그릇의 하나. 07.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 09.오랜 기간에 걸쳐 싸우는 전쟁. 11.솔직한 사람이 모자라 매우 난처한 일. 14.자춧빛의 수정. 자석영. 16.길에

쌓인 눈을 치워 없애는 기계. 18.농사짓는 일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 20.많은 사람이 줄을 지어 길게 늘어 서 있는 모양을 이르는 말. 22.실내의 더러워진 공기를 바깥의 맑은 공기와 바꾸는 기구. 23.남편이 죽고 홀로 사는 여자.

■세로 열쇠 01.경제와 문화가 앞선 나라. 02.순조롭게 항행함. 또는 그런 항행. 04.어린이의 작은 이불. 06.자기 눈에 물을 끌어 대다는 뜻으로, 자기에게만 이렇게 함. 08.실제로 해 보거나 겪어 봄. 또는 거기서 얻은 지식·기능. 09.실없이 하는 일. 10.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거나 바꿈. 12.남의 집에서 돈을 받고 그 집 자녀를 가르치는 사람. 13.학교에서 배운 것의 복습과 예습

을 위해 내주는 과제. 14.그 사람 자신. 15.농사짓는 일을 그만두고 농촌을 떠남. 17.눈이 올 때 부는 찬바람. 19.관리나 군인이 아닌 일반 사람. 21.음식의 씹 좋은 맛.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 칸을 이어붙으면 나라 이름이 됩니다.

